

ASEAN+3 지역 경제전망 2018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AREO) 2018

Key Messages

ASEAN+3 지역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1. ASEAN+3 지역의 GDP 성장률은 견고한 내수 경기 회복 및 수출 성장세 확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에 힘입어 2018 년중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역내 최대 회원국인 중국 및 일본도 견실한 성장 지속.
2. AMRO 의 분석에 따르면 ASEAN+3 회원국은 대부분 경기순환 중기 (mid-business cycle)국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가운데 산출갭(output gap)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 신용 사이클 관련, 과거 추세적 성장을 웃도는 확장세를 보였던 신용은 금융 당국의 선제적 정책 영향으로 여러 역내 회원국 사이에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
3. 대외 수요 확대로 역내 회원국들의 잠재적 대외 충격에 대한 추가적 흡수 능력 구축(buffers)이 가능했으며 최근 몇 년 간 회원국들의 신축적 환율 운영이 개선되면서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 확대.
4. 각종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위급성(imminence)을 분석한 AMRO 의 글로벌 리스크 맵(Global Risk Map)에 따르면 ASEAN+3 지역은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과 글로벌 무역 긴장 확대라는 두 가지 단기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 이같은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역내 자본유출과 차입비용 상승, 무역 투자 흐름 감소 등의 파급효과(spillovers) 예상.
5. 리스크 대응 및 경제 성장 지속, 특히 향후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심화에 대비하여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함. 가용 재정여력과 재정준칙(fiscal rules) 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앞으로는 재정 정책의 경제 부양 역할이 확대될 수도. 더욱 취약해진 일부 시장 부문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가 금융 안정성 보호(safeguard)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테마연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회복력과 성장 (Resilience and Growth in a Changing World)

6. ASEAN+3 국가들은 지난 수년간 '수출을 위한 제조(manufacturing for exports)'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생산성 증대와 임금 상승 등을 위한 강력하고 자기 강화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해 옴.
7. 이같은 '수출을 위한 제조업'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시험대에 오름. 국내 생산 역량이 강화되면서 중간재 수입이 국내 자체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답보 상태의 징후를 보임. 한편 이런 흐름에 대한 균형 추로서 역내 최종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보호주의로 인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 제공.
8. '수출을 위한 제조업' 전략에서 기술이 '양날의 칼'임은 이미 증명됨. 한편으로는 제조 기술 발달과 자동화로 인해 제조업은 더 이상 전만큼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 수 없음. 다른 한편, 기술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새로운 잠재적 동인으로서 서비스 부문의 부상을 촉진시킴.
9. ASEAN+3 지역은 이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연계성 및 통합 강화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역내 최종수요 대응에 나서고 대외 충격에 대한 지역 전반의 회복력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개별 회원국은 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복수의 성장 동력 개발을 통해 회복력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10. ASEAN+3 지역 내 풍부한 자원과 발전 다양성은 이 지역의 큰 힘의 원천. 국내 및 역내 인프라 투자를 통한 연계성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무역 촉진 정책이 요구됨. 활기찬 서비스 업종 및 인적 자본 발달을 위하여 서비스 부문 자유화 등 일련의 정책이 필요하며 ASEAN+3 지역 내 가용 인적 자본 활용을 위해 우호적인 노동 및 이민 정책 등이 필요.

주의(Disclaimer): 본 한국어 버전은 영어 원본(<http://www.amro-asia.org/asean3-regional-economic-outlook-2018-key-messages>) 번역본임. 정확한 번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만일 영어 원본과 번역본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 원본이 우선함.